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사순절 제4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2(통11). 거룩한 주님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봄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을 생동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쾌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들판에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을 향해 새롭게 돌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다 써버리고 정작 중요하고 귀한 일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릇 지킬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온전해진다는 지혜자의 말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7:15 .....
♠ 교 독 문 .....	127. 사순절(4)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I. 이명희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13(통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성경봉독 .....	I. 요18:15-18,25-27 .....
찬 양 .....	II. 막9:19-29 .....
말 씬 .....	I. 투자가 베드로 .....
거둠기도 .....	II.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 사
	다함께

- 찬 송 ..... 560.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믿음으로 성큼성큼 주님께서 가라하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염려와 걱정들을 뿌리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붙잡히여 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말씀 : 김재흥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이광섭 집사	기도 : 박미영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강순배 권사

<b>3월</b>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안홍숙   박경선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2009 한국교회 물 사랑 선언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창1/20)

땅이 갈라지고 댐과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샘마저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평년에 비해 60% (지역에 따라 28%)에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은 큰 불편함을 넘어 불길한 예감과 두려움마저 들게 한다. 태백에서는 하루 3시간의 제한적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없는 산간이나 섬 지역은 급수차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던 검룡소가 말랐다. 가뭄은 매일 1000t의 물을 쏟아냈던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소를 말렸다. 기상청은 이 가뭄이 5월까지 이어진다고 예견하고 있어 당장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올 해 농사를 준비해야하는 농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다. 우리가 쓰는 물의 양은 누수 되는 양을 포함해 1인당 하루 395l에 이른다. 독일에 비해 3배, 프랑스에 비해 2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로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비가 적게 오면 논농사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주식이 바뀌게 된다. 이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지의 1/3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된다. 인간의 무절제한 삶이 불러온 재앙이다.

물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물에 생명체를 창조하심으로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예수께서도 당신을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에서 물은 죄를 씻는 세례수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물은 거룩하고 신비하며 소중하다.

한국교회는 물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신앙적 성찰을 통해 물 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다. 물

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무이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절제와 나눔으로 극복하자. 한국교회는 물 사랑 실천운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한국교회 물 사랑 수칙 \***

1. 물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절약하자.
2. 정수기 사용을 자제하자.
3. 친환경 세제(비누, EM, 물사랑치약, 소금)를 적당히 사용하자.
4. 물은 반드시 받아서 쓰고 깨끗이 사용하자. (설거지, 세수, 양치질 등)
5. 화단 (화분)에 주는 물과 청소용 물은 허드렛물을 이용하자.
6. 변기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 물을 절약하자.
7. 소변, 대변으로 구분된 변기나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자.
8.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자.
9. 주변 샐강을 청소하고 보호하자.
10. 정기적으로 물 관련 시설을 견학하자.
11. 물은 생명인 동시에 심판임을 기억하자.
12.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후원하자.

**\* 기독교인 물 사랑 수칙 \***

1. 물은 받아쓰고, 화단, 주방, 변기용으로 다시 사용하자.
2. 가급적 손빨래를 하고, 세탁 시 빨래를 모아서 하자.
3. 세탁, 샤워, 머리감기 횟수를 줄이자.
4.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비누, EM)를 쓰자.
5. 먹을 만큼 차리고 음식찌꺼기를 줄이자.
6. 변기세척제, 표백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말자.
7. 쓰레기와 오물을 하천, 바다에 버리지 말자.
8. 샐강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9. 지하수 이용을 절제하고 오염을 줄이자.
10. 빗물을 모아 사용하자.
11. 소변, 대변으로 구분된 변기를 사용하자.
12. 변기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 사용하고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자.
13. 중수도 설치, 수도물 누수방지, 수도물 값 현실화를 건의하자.

## 춘원 이광수의 기독교 비판

- 한국교회는 너무 권위적이고 계층적이다. 꼭 양반, 상놈 하던 시대 처럼 목사, 장로와 평신도 간의 계층구조가 심하다.
- 한국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해서 교회에만 치중하고, 평신도의 소명인 세상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한다.
- 상당수 목사들의 교육 수준이 형편없다.
-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많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안다. 한민족을 계몽하자면서 미신적 신앙을 전수하니 이게 웬말이냐.
- 구교, 신교 합치면 100년이 넘는 선교역사를 가졌는데 어째 한국교회는 제 소리, 제 신앙고백이 없고 다 가져온 것이냐. 진정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시편 한 편, 주체적 신앙고백 한 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없다.
- 선교사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몇몇 한국인 목회자들이 성서 해석의 독점권을 가진다. 다양하게 성서를 연구하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인 모임이 없다. 기껏 유교의 독재를 벗어났는데 새로이 독재자를 만난 기분이다.
- 한국 기독교는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한다. 도대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초월적 신앙이 적용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박창운 허정윤 김필순 장성호 임주빈 최현옥 조병주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병구 김정애 허호범 박성실 이한림 김명희 정복순  
 임고은

### 월정헌금:

이재구 황선희 정완수 김재광 김문주 이광섭 김수연 배부례 고숙이  
 최철수 곽권희 송임희 이병철 김현진 안길상 이형숙

### 감사헌금:

김광수 김철수 유영남 김종철 고영애 한상의 정영선 정희선 진해식  
 윤주필 윤돈희 강지은 이재문 전영규 김경수 김춘려 전성오 박병구  
 김정애 하재두 김중수 이순정 황경순 이봉옥 무 명

### 녹색꿈 헌금:

곽상준 최경미 이건식 이준희 김용길 최영혜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노 봉 임	김 정 섭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교 회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서 원 금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최 종 미	김 명 순
갈 린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최 희 영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김 순 복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애	김 정 숙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이 순 정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구 성 실	황 선 희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교 회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김 혜 권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이 봉 배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박 혜 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2. **새벽기도**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3주간 계속되는 기도의 순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3. **축구시합** : 오늘 오후 4시에 한강고수부지(이촌동지구)에서 축구시합을 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마당으로 3시2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청소** : 이번 주 28일(토) 오전 10시부터 5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 청소를 합니다.
5. **세례 입교 교육** :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입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오늘은 물의 날입니다. 물 사랑 수칙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곽상준 최경미 (다음 주 : 조순덕 이준하)

### 새교우 소개

변재민 (2남선교회) 이소혜 (6여선교회) 김거태 (5남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